
인사말



<역사를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이 끌리고 흥미 있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일이다.> 네루-장기집권자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에게 ‘차차지’ (아저씨님)라 불리었던 정치인 “자와할랄 네루”가 남긴 말입니다.

미주이민 1백 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스스로 자축하면서 한편으로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국승구 총연신문, 제작 편집위원장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19대 미주 총연이 남기는 "한인회100년 및 총연 25년사"와 “사업 활동보고서”는 후대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새 역사를 향한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역사적 가치는 물론, 미주 한인사회 정체성 확립과 한인회 위상제고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으로 영구히 남겨질 것입니다. 쓰여진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사건들의 조그만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행동들의 총계가 우리 세대의 역사로서 쓰여질 것입니다. 미주 총연은 이제 20대 회장단의 새로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쓰여질 역사 앞에 우리모두 겸허한 마음과 자세를 바로할 때입니다.

그 동안 총연신문 제작을 위해 정성으로 자료를 보내주신 작은 도시의 한인회 회장님들, 제작비 지원을 위해 광고를 내주신 큰 도시 회장님들과 총연임원 회장님들의 성원에 비해 돌이켜 보면 질과 양, 모두 부합해 드리지 못한 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제 19대 미주 한인회총연 집행부 일원으로 도도히 흐를 미주 한인회 총연의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오영 총회장님과 이끌어 주신 여러 선배 회장님들, 그리고 수고하신 회장님들과 자부와 긍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연신문, 제작 편집위원장 국승구
